

왜 걷냐건, 雪來기 때문이지요



'올림픽 트레킹 로드' 겨울산행 코스 3選

강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Legacy·유산)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원도와 강원일보사,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랜드가 공동으로 '올림픽 트레킹 로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지역언론, 지역기업이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강원도내 조성된 명품하늘숲길과 올림픽아리바우길 395.7km, 대관령국민행복숲 3,000ha를 스토리텔링하는 대장정이다. 올림픽 트레킹 로드 중 겨울 산행코스 3선을 선정해 소개한다.

◇선자령 순환등산로 (대관령국민행복숲)

선자령에 오르는 길은 그리 급하지 않은 경사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겨울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올림픽 아리바우길'과 '대관령국민행복숲' 그리고 강릉시가 조성한 '바우길'에 모두 걸쳐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어 인기코스다.

특히 정상 부근에서 만나게 되는 풍차(풍력발전기) 길은 순백의 겨울풍경과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만들어 낸다. 고랭지 배추밭과 합(合)을 맞추고 있는 강릉 '안반덕이', 태백 매봉산 '바람의 언덕'의 풍차와는 느낌이 다르다.

선자령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늘목장을 통과하거나, 영동고속도로 다리 아래에 있는 초막골 등산로를 들머리로 정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옛 대관령휴게소(대관령마을휴게소)를 출발지점으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

승용차 수십대는 넉넉히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광장 같이 넓은 주차장이 있어 산행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제격이다. 일단 '대관령국사성황당'이라는 표지석이 있는 선자령 등산로 입구로 올라서면 틀림없다.

아스팔트길을 타고 걷다보면 몇개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대관령국사성황당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재궁골 삼거리로 지나 계곡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곳은 일정한 경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산길로 택하는게 좋다. 등산로의 오른쪽 길로 계속 걷다보면 강릉시와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나오고 이내 바람 방향으로 허리가 굽어진 나무들도 만나게 된다. 정상에 다 왔다는 신호다.

정상부근에서 백패킹을 하는 등산객이 많지만 이곳은 갈바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하산할 때는 등산로 왼쪽 길을 통해 옛 대관령휴게소로 내려오면 된다.

◇ 대관령옛길 (올림픽 아리 바우길)

대관령옛길의 코스도 역시 옛 대관령휴게소에서 시작된다.

대관령옛길은 신사임당이 어린 울곡의 손을 잡고 서울에서 고향 강릉으로 향할 때 남았다고,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송강 정철이 이 길을 지나며 '관동별곡'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 정윤의 꿈을 품은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향양을 가기 위해 남기도 하고, 강릉의 특산물을 보부상들이 지고 오르기도 했던 고갯길이다. 선조들의 '희로애락'이 녹아있고 수백년 생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타임머신 같은 '역사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관령옛길은 문화재(명승 제74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선자령을 오르는 길은 같지만 선자령코스와는 달리 인근 양떼목장 담장길을 타고 오르는 길을 택해야 한다. '영웅의 숲'을 스치고, '대관령국사성황당'을 지나쳐 경강로(옛 영동고속도로) 길 건너 반정(半程)에 도착해야 코스의 3분의 1정도 온 것이다. 여기서 노란 입도 차단기 넘어 우측 길로 가면 '금강소나무숲길'이 나오고, 왼편의 나무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그대로 대관령 옛길이 이어진다.

중력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니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길이 재밌다. 본격적으로 길

대관령국민행복숲 선자령 순환등산로

- 완만한 경사·정상 풍차 장관
- 동해바다 한눈에...갈바람 주의
- '대관령 옛길' 올림픽아리바우길
- 양떼목장 담장길 따라
- 신사임당·울곡처럼 고개 넘기
- 명품하늘숲길
- 석탄 나르던 곳 눈썰매 타고 썽썽
- '도롱이 연못' 이국적 풍경

을 나선지 얼마 안돼 물소리 시원한 계곡이 나오고 이내 주막터도 만나게 된다. 한숨을 돌리고 길을 떠나면 또 얼마안가서 이 코스에서 유명한 우주선 화장실에도 착한다.

화장실에서 조금 더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관령박물관을 낚머리로 하는 '대관령 옛길 2코스'로 접어든다. 물론 그대로 길을 타고 가면 보광리 자동차마을(대관령 옛길 1코스)에서 걸기를 매조지할 수 있다.

◇운탄고도(運炭高道·명품하늘숲길)

재미있는 겨울산행을 원한다면 단연 '운탄고도(運炭高道)'를 추천한다. 계절을 막론하고 국내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해발고도가 평균 1,100m에 이르는 운탄고도는 말 그대로 '석탄(炭)을 나르던(運) 높은(高) 길(道)'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 만항재에서 함백역까지 석탄을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길인데 아직도 길 여기저기가 거뭇 거뭇하다.

명품하늘숲길의 '하늘마중코스'와 '자작나무코스'에 해당한다. 보통은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화절령'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 '만항재'에 이르는 코스인데 화절령보다는 만항재를 들머리로 결정하는 것이 주차문제 등에서 훨씬 편리하다.

겨울철에는 보통 만항재에서 하이원CC로 이어지는 짧은 코스를 타는 경우도 많다.

재미있는 것은 겨울철 만항재에서 운탄고도를 타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썰매 하나씩은 짊어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내리막이 심하지 않게 등장하기 때문에 힘이나 안달이 없고 눈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재미가 또 쏠쏠하다.

이 코스도 백패킹이 유명한데 텐트를 칠 수 있는 공터에 우뚝(?) 솟아 있는 '왕따자나무'가 재미있는 이름과 함께 이정표 역할을 독특하게 한다.

하이원CC를 지나치면 화절령에 다다른다. 깎트머리에는 유명한 '도롱이 연못'이 있다. 탄광의 지하경도가 무너져 내린 곳에 물이 차오르면서 생겨난 동근연못인데 연못을 둘러싼 나무가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 사진 촬영 포인트로도 각광을 받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원일보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대관령 능선과 목장 그리고 동해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선자령 순환등산로 구간은 겨울철이면 많은 등산객이 줄지어 트레킹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썰매를 타며 운탄고도를 즐기기 위해서는 만항재를 들머리로 해야 한다. 만항재는 겨울철만 되면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는 야생화 단지가 온통 흰눈의 향연으로 절경을 선사한다.

-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韓語報는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